

# 율곡 독서론의 전개와 특징

- 「성학집요」, 「격몽요결」을 대상으로 -

김원준\*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율곡 독서론 분석
- III. 兩書를 통한 독서론 대비
- IV. 율곡 독서론의 특징
- V. 마무리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율곡 독서론이 집약된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을 대상으로 율곡 독서론의 특징 전반을 적출했다. 양서가 독서론의 편폭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독서론의 핵심 항목인 독서의 목적, 자세, 방법, 순서, 병폐는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독서 목적은 공리를 통한 本然之性의 회복과 正道 실천에 있다. 결국 上達과 下學이 독서 목적인 셈이다. 독서 자세에 있어 핵심은 敬에 있다. 경을 통한 독서가 되어야 하므로 독서 자세는 居敬을 위한 내면 자세와 거경에 이르기 위한 실천적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서 방법은 독서를 위한 실질적 방법론이다. 주자의 독서 방법을 3단계로 나누어 독서 방법 일반론을 제시한 후, 誠을 통한 실천적 독서 방법을 강조했다.

주제어 : 율곡, 성학집요, 격몽요결, 독서 목적, 독서 자세, 독서 방법

---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독서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은 시·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는 정보와 지식을 쌓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독서를 활용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정보와 지식의 보(洩)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꺼내 씌으로써 하나의 지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현대 독서의 일차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전통 독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란 새로운 사실이나 이치를 깨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글을 읽어 이치를 구한다거나 사물을 구명하는 데 있어 독서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sup>1)</sup>는 말은 시대를 통괄하는 하나의 목적이 된다.

독서의 일차적 목적이 정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해 이치를 찾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둘 수 없지만 독서의 지향점은 현재와 과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지금의 독서가 실용적 측면에 우선한다면 전통 독서는 道義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어떻게 읽어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둔 것이 현대 독서의 현실적 지향점이라면, 독서를 통해 성현의 언행을 체득하고 천리를 찾아 도를 실천하기 위한 이치 궁구는 전통 독서의 지향점이 된다. 결국 독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독서의 방법이나 자세 등은 상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독서 목적의 현격한 차이는 당연히 독서법의 차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그 차이점을 밝히기에 앞서 율곡 독서론을 통해 우리의 전통 독서법부터 고찰하고자 한다. 고전독서론에 대한 연구는 서구 독서이론에

1) “이치를 궁구하는 데 있어 독서를 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窮理莫先乎讀書)”, 『율곡전서』권27 『격몽요결』, “글을 읽어서 그 이치를 구하는 것이다.(讀書以求其理)” 『율곡전서』권35 <행장>.

대한 우리의 전통 독서이론 확립이란 취지 아래 그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sup>2)</sup>되어 왔다. 특히 인물 중심의 독서론 연구에 있어 이덕무, 이항, 정약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에 비해 본고에서 논의할 율곡의 독서론은 아직까지도 미진한 상태<sup>3)</sup>이다. 동서로 병칭되는 율곡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그의 독서론 또한 당대 퇴계에 못지않은 것이다.

율곡은 문집 곳곳에서 자신의 독서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에서는 독서이론에 대한 율곡의 논리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율곡 독서론 연구는 개괄적이거나 지엽적인 데 치우쳐 그의 고유한 독서론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율곡 연구에 있어 상당한 진척을 보인 工夫論<sup>4)</sup>에서 그의 독서론이 일정 부분 제시되어 있고, 조선시대 독서법<sup>5)</sup>을 논하는 과정에서 율곡 독서론의

2) 고전독서론과 관련한 전반적 개관은 김기호의 「고전독서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잘 정리되었다. 김기호는 기존에 발표된 고전독서론 관련 80여 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인물을 중심으로 독서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퇴계의 독서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신태수의 논문들은 고전독서론의 새로운 방법론을 보여주어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3) 권호, 「율곡 이이의 독서론」, 『독서문화연구』4호, 2004.; 홍운녕, 「율곡 이이의 독서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조희정, 「전통적인 글읽기의 성격과 과정 -『성학집요』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김영, 「조선시대 독서론 연구 - 퇴계와 율곡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12집, 한국한문학회, 1989.; 김원준, 「퇴계와 율곡의 독서법 용어를 통한 고전독서이론의 모색」, 『영남학』21호, 2012.

4) 박근섭, 「율곡의 인격과 공부에 관한 견해 검토」, 『한국교육사학』30권 2호, 2008.; 황금중, 「율곡의 공부론과 『성학집요』」, 『한국교육사학』24권 1호, 2002.; 서정규, 「율곡의 공부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송수진, 「『성학집요』의 공부론 함의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등의 논문은 율곡 공부론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그의 독서론을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다.

5) 김광규, 「조선시대 독서법에 관한 소고」, 『한자한문교육』5집, 1999.; 김광규, 「16세기 사림파의 독서에 대한 담론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 국면」, 『독서연구』10호, 2003.; 김정남, 「고전 독서에 대한 연구 경향과 고전 교육 연구가 나아갈 길」, 『한국민족문화』44집, 2012.; 김수경,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13권 2

특징적 면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율곡 독서론의 전모를 밝힐 깊이 있고 일관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본고는 기존 율곡의 독서론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의 독서관이 제시된 글을 정리하여 그가 지향한 독서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상이한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지은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을 기본 텍스트로 삼는다. 두 권의 글에서 보여주는 율곡의 독서 이론을 분석·대비하여 그의 독서 이론이 지닌 특징적 면을 밝힐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율곡 독서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명함과 동시에 그의 독서론에 내재한 핵심 가치를 찾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율곡 독서론 분석

조선의 독서법은 주자가 저술한 「讀書法」<sup>6)</sup>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다. 성리학을 수용한 조선의 유자들에게 있어 주자의 「독서법」은 독서의 典範이라 할 수 있다. 율곡의 독서론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의 독서론 근거에는 주자 독서법이 상존해 있는 것이다. 특히 주자가 글의 서두에 “독서는 배우는 사람의 두 번째 일이다”<sup>7)</sup>라는 李方子の 말을 제시하여 독서의 궁극적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점은 율곡뿐만 아니라 모든 유자

호, 2002.; 한미경, 「조선시대 독서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56집, 2013.

6) 「讀書法」은 『朱子語類』 권10과 권11에 수록된 것으로 독서의 목적, 태도, 방법 등 독서와 관련한 주자의 독서론이 망라된 글이다.

7) “讀書乃學者第二事 方子” 「讀書法」卷上. 독서가 배우는 사람의 두 번째 일이란 것은 첫 번째 일인 본연의 性을 회복하여 참된 나를 되찾아 마침내 성인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독서를 통해서 찾으라는 의미이다.

가 공유하는 독서의 목적으로 이견이 없다.

주자의 독서법을 근간으로 한 율곡의 독서론은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두 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율곡이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을 저술한 데는 나름의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 율곡은 『성학집요』를 지은 의도를 “위로는 우리 임금에게 바치고 아래로는 후생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sup>8)</sup>라고 했다. 반면 『격몽요결』은 “초학의 향방을 모르고 굳은 뜻이 없이 배우면 피차의 도움이 없고 남에게 조롱을 사게 될 것을 염려하여 간략하게 책을 쓴다”<sup>9)</sup>고 저술의 목적을 밝혔다. 저술의 의도나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은 대상에 따른 독서법의 차이를 배제할 수 없다. 兩書を 통해 율곡은 독자층에 따라 어떤 독서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1. 『성학집요』 독서법

율곡은 『성학집요』를 편찬한 후 임금께 올리는 글에서 도학의 요령을 얻는 방법을 삼고자 이 책을 편찬했다고 그 의도를 밝혔다. 그런 다음 “제왕의 학문하는 본말과 정치의 선후와 덕을 밝히는 실효와 백성을 새롭게 하는 실적에 대해 대충이나마 큰 틀을 잡아놓았다.”<sup>10)</sup>라고 하여 구체적 이윅을 제시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성학집요』의 편찬 의도는 임금에게 중점을 두고 제왕이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지침이 되고자 한 것이다. 비록 帝王入道의 指南이란 궁극적 편찬 의도가 있지만 그 대상이 제왕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8) 『성학집요』進筭, “上以達於吾君 下以訓於後生”

9) 『격몽요결』序, “恐初學 不知向方 且無堅固之志而泛泛請益 則彼此無補 反貽人譏 故 略書一冊子”

10) 『성학집요』進筭, “凡帝王爲學之本末 爲治之先後 明德之實效 新民之實迹 皆粗著其梗概”

율곡은 이 책이 임금의 학문을 주로 했지만 실상은 상하에 두루 통한다고 했다. 이는 유가의 학문적 지표를 엄두에 둔 것이다. 율곡이 성현의 학문이 修己와 治人に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內聖外王과 修己安人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결국 성인의 성취를 목적으로 상하는 모두 聖學을 통해서만 중국에 이르게 됨을 강조한 것이다. 성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현의 마음 쓴 자취를 본받아야 하는데 그 자취가 책 속에 온전히 남아있다. 책 속에 담긴 성현의 마음 쓴 자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독서법이 요구된다. 『성학집요』에서 보여준 율곡의 독서법은 곧 성학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율곡의 叢書를 통틀어서 『성학집요』만큼 다양한 독서법을 제시한 글이 없다. 책의 구성은 모두 5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제1편 ‘統說’과 제5편 ‘聖賢道統’은 조목이 없는 대신, 제2편 ‘修己’는 13조목, 제3편 ‘正家’는 8조목, 제4편 ‘爲政’은 10조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독서와 관련하여서는 제2편 4장 <窮理>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율곡은 <궁리>장에서 독서의 방법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는데, 그 방법들이 율곡 자신의 독창성을 담보했다기보다는 宋儒들의 독서법을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펼쳤다.

『성학집요』를 살펴보면, 상당량이 독서와 관련하여 저술하고 있어 율곡이 독서를 얼마나 비중있게 다루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제2편 『修己上』4장 <窮理>의 경우, ‘右通言讀書之法’이라 하여 따로 독서법만을 기술하였고, 이어서 小學·四書·六經·史記를 독서순으로 제시하고 있어 마치 <궁리>장은 책 속의 책으로 율곡의 ‘독서론’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 외의 편장인 2편 2장 <立志>, 3장 <收斂>, 6장 <矯氣質>은 단편적 독서법에 대한 언급이며, 제3편과 5편은 독서법의 편린을 보여준다.

『성학집요』<궁리>장에서 보여준 율곡의 독서론은 宋儒의 생각을 빌려

자신의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율곡의 독자적 견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가 성리학이라는 중세 보편의 가치 기준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비록 송유의 독서론을 인용했지만 이는 율곡의 독서론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성학집요』에는 독서론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항목 27개가 있다. 이들 항목을 篇章과 論者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篇章	項目數	論者
2편 修己上, 2장 立志	1	朱子(1)
2편 修己上, 3장 收斂	3	주자(2), 陳栢(1)
2편 修己上, 4장 窮理	20	주자(11), 程子(5), 李侗(1), 楊時(1), 呂祖謙(1), 許氏(1), 栗谷(1)
2편 修己中, 6장 矯氣質	1	주자(1)
3편 正家, 4장 教子	1	정자(1)
5편 聖賢道統	1	주자(1)
계	27항목	8명

독서론과 관련한 27개 항목은 8명의 논자가 밝힌 것인데, 이 가운데 16 항목에서 논한 주자가 단연 으뜸이다. 뒤를 이어 정자가 6항목, 진백·이동·양시·여조겸·허씨·율곡이 각각 1항목씩 다루고 있다. 각 항목에는 독서론과 관련하여 하나의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이나 두 가지 이상의 논의도 있다. 8명의 유자가 밝힌 독서론을 주제별로 나누어 빈도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자 주제(빈도)	주자 (24)	정자 (6)	진백 (1)	양시 (1)	이동 (1)	여조겸 (1)	허씨 (1)	율곡 (3)
독서 목적(5)	3	1						1
독서 자세(4)	3		1					
독서 방법(14)	9	2		1	1		1	

독서 효용(2)	1	1						
독서 경계(2)	2							
경전 독법(3)	1	2						
독서 순서(1)								1
독서 병폐(7)	5					1		1

주자를 비롯한 8명의 유자가 논한 독서론을 주제별 빈도순에 따라 나열하면, 독서 방법-독서 자세-독서 목적·독서 병폐-독서 효용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독서론인 만큼 독서의 주대상인 경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 우선이므로 독서 방법에 대한 논의가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독서의 자세조차도 독서 방법의 일부분으로 포함한다면 독서와 관련한 논자들의 주된 논의는 결국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있어 방법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많이 논의된 독서론은 독서 병폐이다. 독서 병폐는 잘못된 독서 방법이 빚어낸 병통을 말한다. 독서 병폐가 잘못된 독서 방법을 질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경계의 잣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범위를 확장하면 독서 방법에 속하다고 할 수 있다. 독서 경계를 포함한 독서 병폐는 독서 방법에 따른 병통을 밝히기 위한 데 국한되어 있지 않다. 독서 병폐는 독서의 잘못된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내지 그 결과를 말한다는 점에서 거꾸로 보는 독서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성학집요』에서 거론된 송유들의 독서론은 방법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학집요』에서 송유들의 독서론을 전개한 율곡은 <궁리>장 말미에 ‘臣按~’이라 하여 자신의 독서론을 밝히고 있다. 율곡은 <궁리>장을 마무리 하면서 자신의 독서론을 독서 목적, 독서 순서, 그리고 독서 병폐로 나누어 간명하게 제시했다. ‘신안~’에는 독서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독서의 목적과 차례를 전제로 하고

독서 병통을 기술하는 것으로 단락 지었다. 율곡이 구체적 독서 방법론 없이 글을 맺었지만 실상 그의 방법론은 주자를 위시한 송유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제시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학집요』에 나타난 송유의 독서론은 결국 율곡 자신의 독서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

## 2. 『격몽요결』 독서법

『성학집요』가 『대학』의 삼강령 팔조목을 중심으로 군주의 학습을 위해 집필한 것이라면, 『격몽요결』은 초학자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율곡은 序에서 해주 석담에 있을 때 따르는 초학도를 강학하기 위해 지은 것이라고 했다. 대상이 초학도란 점에서 책의 내용이 입문서 수준이란 오해를 살 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초학도는 성리학 영역에 입문하는 학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격몽요결』은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익히려는 학도를 위해 그 향방을 제시한 책이다.

율곡은 『격몽요결』의 1장 ‘立志’에서 마지막 장인 10장 ‘處世’를 통해 자신의 교육론을 바탕으로 성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가운데 1장에서 4장까지는 학자들의 마음가짐과 몸가짐, 그리고 독서 등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4장을 ‘독서’장으로 나눔으로써 율곡이 수양 주체의 의식적 노력 가운데 독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앞서 『성학집요』가 송유들의 독서론을 인용하여 자신의 독서론을 밝혔다면, 『격몽요결』은 초학자들을 위한 자신의 독서론을 제시한 것이다. 아래 도표는 율곡이 제시한 독서론을 주제별로 나누어 빈도수를 정리한 것이다.

주제(빈도)	편 장 - 빈도수
독서 목적(3)	序 -1, 4장 <讀書> -2,
독서 자세(1)	4장 <讀書>
독서 방법(3)	3장 <持身> -1, 4장 <讀書> -2,
독서 순서(1)	4장 <讀書>
독서 병폐(2)	4장 <讀書>

율곡이 『성학집요』<공리>장을 통해 자신의 독서론을 집중화했듯이 『격몽요결』에서는 4장 <독서장>을 중심으로 초학자를 위한 바람직한 독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편폭과 깊이에 있어서는 『성학집요』에 미치지 못하지만 독서의 목적·자세·방법·순서·병폐를 밝혀 놓음으로써 초학자를 위한 독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소학』에서부터 경서·성리서를 순차적으로 나열한 후 각각의 책들을 통해 익히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간명하고도 핵심적으로 밝혀 놓았다.

이렇게 볼 때 『격몽요결』에서 보여준 율곡의 독서론은 하학의 실천적 독서법을 제시하고 있다. 초학자를 위한 교재란 점에서 율곡은 그들의 눈높이를 고려했다. 비록 많은 양을 담보하지 않았지만 독서의 목적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밝혀놓았다. 독서의 원론적 목적을 전제로 한 후, 초학자들이 읽어야 할 서적 목록을 순차적으로 배열했다. 그리고 각 경서에 따른 독서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독서 실천에 중심을 두었다. 율곡은 각 경서가 지닌 독서 방법에 있어서도 그 목적에 따른 개별 독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초학자를 위한 실질적 독서 목적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 Ⅲ. 兩書를 통한 독서론 대비

율곡은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에서 그 대상을 달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가 학문의 성취를 통한 실천을 염두에 두고 저술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독서이다. 『성학집요』의 경우 <공리>장을 통해 독서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격몽요결』에서는 ‘독서장’을 따로 두어 자신의 독서론을 펼쳤다. 양서를 통해 전개한 율곡의 독서론을 독서 목적, 독서 자세, 독서 방법으로 나누어 독서론을 대비하고자 한다.

#### 1. 독서 목적

율곡은 양서에서 독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성학집요』가 宋儒의 목소리를 빌려 독서 목적을 제시했다면, 『격몽요결』은 독서 목적에 대한 자신을 생각을 드러냈다. 비록 서로 다른 목소리로 독서의 목적을 밝히고 있지만 궁극의 지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유자가 취해서 나가야 할 바가 道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서가 그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취하므로 목적은 한 방향으로 모여질 수밖에 없게 된다. 먼저 『성학집요』를 통해 밝힌 독서 목적을 제시한다.

① 의리가 투철하게 통하지 못하거든 글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기를 항상 끊임없이 하면 물욕이 이기지 못하여 본심의 의리가 편안하고 견고해질 것이다.(義理浸灌未透 讀書窮理 常不間斷 則物欲不能勝 而本心之義理 安且固矣) 4章 <窮理>

② 분명한 자취와 틀림없는 공효가 경전의 가르침과 사책 가운데 갖추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나아가 구하지 아니하면 이는 담 앞에 선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공리가 반드시 독서하

는 데 있다는 이유이다.(是其粲然之跡 必然之效 莫不具於經訓史冊之中 欲窮天下之理而不即是而求之 則是正牆面而立爾 此窮理所以必在乎讀書也) 4章 <窮理>

③ 주자가 말하기를, “학문이란 기질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책을 읽어 궁리하거나 공경을 주로 삼아 본심을 보존하지 않고, 그저 어제의 잘못과 오늘의 바른 것만 따지고 비교하는 데 급급하다면, 또한 수고롭기만 하고, 아무런 보탬도 없을 것이다.” 하였다.(朱子曰 學乃能變化氣質 若不讀書窮理主敬存心 而徒切切計較於昨非今是之間 恐亦勞而無補) 6章 <矯氣質>

④ 궁리하는 데도 많은 실마리가 있는데, 책을 읽어 의리를 해명하기도 하고, 옛날이나 지금의 인물을 논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기도 하며, 사물에 응하고 접하여 무엇이 마땅한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모두 궁리이다.(須是窮致其理 窮理亦多端 或讀書 講明義理 或論古今人物 而別其是非 或應接事物 而處其當否 皆窮理也) 4章 <窮理>

⑤ 독서는 궁리하는 일이다.(讀書是窮理之一事) 4章 <窮理>

5개의 인용문 가운데 ①~③은 주자, ④는 정자, ⑤는 율곡의 말이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들이 말한 독서의 목적은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데 그것은 ‘窮理’이다. 주자는 독서의 일차적 목적을 궁리에 두고 있다. ‘글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라’, ‘경전과 史冊을 통해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라’, ‘책을 읽어 궁리하라’고 하여 독서를 통한 궁리를 강조하고 있다. 궁리가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앎에 이른다는 格物致知란 점에서 道問學의 공부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독서를 통한 격물치지는 지식의 습득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進學과 成德을 위한 이치의 궁구를 의미한다. 즉 안으로는 자신에게 있는 이치를, 밖으로는 만물에 있는 이치를 궁구하여 본심의 의리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정자는 궁리를 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그 첫째에 독서를 두고 있다. 궁리

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서가 가장 요긴하다는 것을 말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독서의 일차적 목적이 궁리라는 점에서는 주자와 견해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독서를 통한 궁리는 다음 단계인 의리를 밝히는 실천적 측면으로 나가고 있다. 주자가 독서 궁리를 통한 본연지성의 회복이란 최종 지향점으로 나갔다면 정자는 의리라는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

율곡은 “독서는 궁리하는 일이다”라고 간결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 후 궁리의 방법으로 독서의 차례를 제시할 뿐 주자나 정자처럼 궁극적 목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율곡이 <窮理>장의 독서 관련 내용을 맺으면서 독서의 목적을 궁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독서 궁리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 앞서 송유들이 궁리에서 출발하여 본연지성의 회복이나 윤리적 실천이라는 독서의 최종 목적을 제시했기에 율곡은 독서의 일차적 목적인 궁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성학집요」에 비해 「격몽요결」에서는 율곡의 독서 목적만 나온다.

① 학문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꼭 막혀 있고 식견이 좁기 때문에 모름지기 글을 읽고 그 이치를 연구하여 행해야 할 길을 밝힌 뒤에야 학문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을 얻고 실천함이 합당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不學之人 心地茅塞 識見茫昧 故必須讀書窮理 以明當行之路 然後造詣得正 而踐履得中矣) <序>

② 도에 들어가는 데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없으며, 이치를 궁구하는 데 있어 독서를 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니, 성현의 마음을 쓴 자취와 본받을 선과 경계할 악이 모두 책에 있기 때문이다.(入道莫先於窮理 窮理莫先乎讀書 以聖賢用心之迹及善惡之可效可戒者 皆在於書故也) 4장 <독서>

③ 소학, 사서, 삼경 등 개별 서적의 독서 목적 제시. 4장 <독서>

①~③의 인용문을 보면 ①,②는 『성학집요』에서 밝힌 송유의 독서 목적과 패턴이 유사하다. 독서의 일차적 목적을 궁리에 두고, 이어서 궁리를 통한 궁극적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①에서는 궁리를 통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밝혀 합당한 실천으로 나가는 데 독서의 목적을 두고 있다. ② 또한 이치를 궁구하는 데 독서의 일차적 목적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성현의 마음 쓴 자취와 선을 본받고, 악을 경계하는 데 본질적 목적을 두고 있다. ③은 독서의 포괄적 목적과는 달리 경서나 성리서 등 각각의 책이 지닌 개별적 가치를 고려한 독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격몽요결』에서 보이는 율곡의 독서 목적은 궁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성학집요』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궁리를 통한 독서의 궁극적 목적에는 차이를 보인다. 주자는 궁리를 통해 본심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데 독서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하늘이 부여한 온전한 性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上達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율곡은 궁리를 통한 상달로 나가지 않고 있다. 율곡의 궁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율곡은 독서의 궁극적 목적을 궁리를 통해 합당한 실천에 두고 있다. 즉 독서를 통해 성현의 마음 쓴 자취를 밝혀 效善戒惡으로 나가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율곡의 독서 목적은 상달이기보다는 하학을 통한 실천에 방점을 두고 있다.

## 2. 독서 자세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에서는 독서 자세와 관련한 언급은 다른 항목에 비해 그 빈도수가 낮다. 양서를 통틀어 독서 자세와 관련한 기술은 불과 5번에 불과하다. 4번 기술된 『성학집요』는 주자(3번)와 진백(1번)의 글을 인용했을 뿐, 율곡 자신의 생각은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격몽요결』에서

는 宋儒의 견해를 빌리지 않고 자신의 견해만을 1번 제시했다. 이처럼 다른 항목에 비해 독서 자세에 대한 견해가 미흡한 것은 마음의 수렴이란 독서 자세의 중핵이 있기 때문이다. 독서 자세가 마음 수렴에 귀결되므로 그 외의 독서 자세는 필요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양서에서 밝힌 독서 자세를 제시한다.

① 요진경이,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요?” 하고 물으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공의 마음이 흩어진 지 이미 오래이니, 먼저 정신을 가다듬고, 『예기』<옥조>의 구용을 자세히 체득하여 뜻이 선 뒤에 글을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廖晉卿請讀何書 朱子曰 公心放已久 可且收斂精神 玉藻九容處 仔細體認 待有意思 却好讀書) 3장 <收斂>

② 진실로 능히 공경하고 조심해서 항상 이 마음을 보존하며, 종일토록 엄숙한 태도로 물욕에 빠지는 바가 되지 아니한다면, 곧 이것으로 독서도 하고 이것으로 이치도 관찰하여, 어딜 가든 통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고, 이것으로 사물에 응접하면 어떤 일인건 마땅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공경함에 거하고 뜻을 간직하는 것이 글을 읽는 데에 근본이 되는 까닭이다. (誠能嚴恭寅畏 常存此心 使其終日儼然 不徇物欲之所侵亂 則以之讀書 以之觀理 將無所往而不通 以之應事 以之接物 將無所處而不當矣 此居敬持志所以爲讀書之本也) 3장 <收斂>

③ 또 말하기를, “반드시 스스로 정확하고 평온하게 공부에 착수해야 할 것이요, (又曰 必自有的實平穩下工夫處 ) 2장 <立志>

④ 근본이 섰거든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빗질하고 의관을 갖추고서, 단정히 앉아서 몸가짐을 가다듬고, 솟아나는 해처럼 밝게 마음을 추스려 엄숙하게 정제하여 밝게 비우고 고요히 하나로 모으라. 이에 책을 펴서 성현을 대한다면, 공자가 앉아 있고 안·증이 앞뒤에 있을 것이니, 성사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을 경청하고 제자들이 묻고 변론한 것을 반복해서 참작하여 바르게 판단하라. (本既立矣 味爽乃興 盥櫛衣冠 端坐斂形 提掇此心 儼如出日 嚴肅整齊 虛明靜一 [右言晨興] 乃啓方冊 對越聖賢 夫子在坐 顏曾後先 聖師所

言 親切敬聽 弟子問辨 反復參訂 [右言讀書] 3장 <收斂> 이상 『성학집요』

⑤ 무릇 독서를 하는 자는 반드시 단정하게 팔짱을 끼고 바르게 앉아 공경스럽게 책을 대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극진히 하고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이해해 깊은 의미를 알되, 구절마다 반드시 그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한다.(凡讀書者 必端拱危坐 敬對方冊 專心致志 精思涵泳 涵泳者 熟讀深思之謂 深解義趣 而每句必求踐履之方) 『격몽요결』4장 讀書

위의 인용문 가운데 ①~④는 『성학집요』에서, ⑤는 『격몽요결』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가운데 ①~③은 주자, ④는 진백, ⑤는 율곡의 말이다. 성학과 격몽이란 집필의도에 따라 독서 자세를 언급한 주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성학집요』에서 발췌한 주자와 진백의 독서 자세를 살펴본다.

주자의 독서 자세는 ‘收斂精神, 嚴恭寅畏, 居敬持志, 的實平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주자가 책 읽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수렴정신’은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 들여 가다듬는 것을 말한다. 들뜬 마음을 안으로 갈무리하여 마음이 평온하고 기운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엄공인외’ 또한 책 읽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이다. ‘엄공인외’는 엄숙하고 공경하며 삼가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존하여 독서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실평온’은 책을 대하기에 앞서 진실되고 평온한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앞서의 세 가지 독서 자세는 ‘거경’으로 귀결될 수 있다. 거경은 아직 발하지 않는 상태인 靜을 바탕으로 움직임과 고요함을 관통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 마음을 빼기지 않는 主一無適의 내적 수양이다. 이처럼 주자는 독서에 앞서 마음의 안정을 독서의 중요한 자세로 보고 있다.

『夙興夜寐箴』을 지은 陳栢은 거경으로 귀결되는 주자에 비해 책을 대

하기에 앞서 실제적인 준비 자세부터 말하고 있다.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빗질한 후 의관을 갖추고서 단정이 앉아 몸가짐을 가다듬은 후 엄숙정제하여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나로 모으라고 함으로써 책을 대하기 앞서 靜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런 후 책을 펴야 성현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고 참작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비록 진백이 주자에 비해 구체적인 독서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과정은 靜一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靜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경을 독서 자세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주자와 상통한다.

『격몽요결』에 나오는 율곡의 독서 자세 또한 주자나 진백과 다르지 않다. 율곡 또한 책을 대하기에 앞서 敬에 이르러야 함을 밝히고 있어 마음의 靜一을 중요한 독서 자세로 보고 있다. 율곡은 경에 이르는 방법으로 端拱危坐를 제시했다.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은 마음의 발현이다. 단 공위좌는 방만한 마음을 거두고 자신을 성찰하여 그 마음이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단속하고 조심하는 마음의 발로이다. 율곡은 글읽기에 앞서 바르게 앉아 공손한 자세로 고인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를 강조했다. 독서의 자세가 올바로 갖추어졌을 때 고인의 뜻에 젖어들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 3. 독서 방법

독서 방법은 독서의 실질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독서론의 핵심 항목이 된다. 양서를 통해서도 어떻게 읽어야 바르게 읽는 것인지를 초점을 두고 있는 까닭에 논자에 따라 다양한 독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독서 방법에 대한 송유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지만 그 중심에는 주자가 있다. 『주자어류』에 실려 있는 『독서법』이 조선 유자의 절대적 기준이 되

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성학집요』에 수록된 독서 방법 역시 주자가 중심에 있다. 아래 인용문은 『성학집요』의 독서 방법론을 발췌한 것이다.

① 글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 숙독을 하면 기억하게 될 것이고, 뜻이 정밀하지 못할 때에는 세밀히 생각하면 정밀해질 것이다.(書不記 熟讀可記 義不精 細思可精) 제2편 2장 <立志>

② 진실로 이것을 거울로 삼아 반성하면 마음이 하나로 가라앉아,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아서 글을 읽으면 문외가 이어지고 혈맥이 관통하며, 자연히 점점 배어서 폭 젖어 들어 마음과 이치가 맞아떨어져, 선한 것을 권하는 것이 깊어지고, 악한 것을 경계하는 것이 절실해질 것이니, 이것이 순서대로 정밀하게 하는 것이 독서하는 법이 되는 이유이다.(誠能鑑此而有以反之 則心潛於一 久而不移 而所讀之書 文意接連 血脈貫通 自然漸漬浹洽 心與理會 而善之爲勸者 深 惡之爲戒者切矣 此循序致精 所以爲讀書之法也) 제2편 4장 <窮理>

③ 먼저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고르게 한 다음에 숙독하고, 정밀하게 생각하여 글자마다 구절마다 모두 와 닿는 것이 있고 여러 어진 이의 주해도 일일이 꿰뚫어 이해하고 난 뒤에야 그 시비를 비교하여 성현이 말씀하신 근본 취지를 구할 수 있다. 이미 얻는다 하더라도 되풀이하여 완미해서 그 의리가 살에 배이고 골수에 젖어 든 뒤에야 학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先要虛心平氣 熟讀精思 令一字一句 皆有下落 諸家註解 一一通貫 然後可以較其是非 以求聖賢立言之本意 雖已得之 亦更反復玩味 令其義理淪肌浹髓 然後乃可言學耳) 제2편 4장 <窮理>

④ 처음 독서할 적에는 의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다음에 점점 의문이 생기고 중간에는 마디마디 의심스러우니, 이런 고비를 지난 뒤에 의문이 점점 풀려서 자세히 이해하고 이치를 꿰뚫어서 전혀 의심스러운 것이 없어야 비로소 배운 것이 된다.(讀書 始讀未知有疑 其次則漸漸有疑 中則節節是疑 過了這一番後 疑漸漸釋 以至融會貫通 都無可疑 方始是學) 제2편 4장 <窮理>

⑤ 독서할 적에는 반드시 몸가짐을 가다듬고 단정하게 앉아 눈으로 가만히 보고 나지막이 읊조리면서 마음을 비운 채 폭 젖어 들어야 한다. 함영은 속독하여 깊이 완미하게 됨을 말한 것이다. 자기 몸에 절실하게 성찰하여 한 구절의 글을 읽으면 그 한 구절을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를 깊이 살펴야 한다.(讀書 須要斂身正坐 緩視微吟 虛心涵泳 涵泳 是熟讀深玩之謂 切己省察 讀一句書 須體察這一句我將來甚處用得) 제2편 4장 <窮理>

⑥ 반드시 먼저 몸에서 구한 뒤에 책에서 구하면 글을 읽는 데 맛이 있을 것이다.(書則所以接湊此心耳 故必先求之於身 而後求之於書 則讀書方有味) 제2편 4장 <窮理>

⑦ 글을 읽을 적에는 반드시 음운과 풀이를 분명히 하고 장구를 바르게 하였으며, 말을 완미하고 뜻을 탐구하게 하였다.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여 알기 어려운 것을 탐구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편안하게 하여 스스로 터득한 것을 살피게 하였다.(其於讀書也 必使之辨其音釋 正其章句 玩其辭 求其義 研精覃思 以究其所難知 平心易氣 以聽其所自得) 제5편 「聖賢道統」

⑧ 정자가 말하기를, “문자를 볼 적에 먼저 반드시 그 문장의 뜻을 깨달은 뒤에야 그 의미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니, 문장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자는 없다.” 하였다.(程子曰 凡看文字 先須曉其文義 然後可求其意 未有文義不曉而見意者也) 제2편 4장 <窮理>

⑨ 또 말하기를, “자제가 신중하지 못하고 재주가 뛰어난 것을 염려하는 자는, 다만 경학과 책을 읽는 것을 가르칠 수 있으나, 문장을 짓게 해서 안 된다.” 하였다.(又曰 憂子弟之輕俊者 只教以經學念書 誦書也 不得令作文字) 제3편 「正家」 4장 <教子>

⑩ 구산 양씨는, “독서하는 법은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하여, 한가하고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책에서 말한 것과 나타내는 뜻을 막힘없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니, 이는 내가 스스로 이와 같이 했던 것이다.” 하였다.(龜山楊氏曰 讀書之法 以身體之 以心驗之 從容默會於幽閒靜一之中 超然自得於書言象意之表 蓋某所自爲者如此) 제2편 4장 <窮理>

⑪ 만약 『논어』와 『맹자』의 글 가운데에서 깊이 구하고 익숙히 음미해서 함양해 나간다면 비상한 기질을 이룰 것이다.(若能於論·孟中 深求玩味 將來涵養 成甚生氣質 甚生 猶非常也) 제2편 4장 <窮理>

⑫ 허씨가 말하기를, “『사기』를 볼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의 큰 대목을 훑어 본 뒤에 그 세세한 행동을 보아서, 착하면 본받고 악하면 경계해야 내 몸가짐을 바꾸는 데 유익하게 된다. 그저 그 사건만 기억하고 그 글만 외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許氏曰 看史書 當先看其人之大節 然後看其細行 善則效之 惡則以爲戒焉 所以爲吾躬行之益 徒記其事而誦其書 非所謂學也) 제2편 4장 <窮理>

⑬ 또 말하기를, “『대학』을 읽는데 어찌 그 언어만을 보겠는가. 바로 마음에서 어떠한가를 증험해 보아야 한다. ~ (善) 한 가지라도 이르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용감하게 분발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글은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을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였다.(又曰 讀大學 豈在看他言語 正欲驗之於心 如何~一有不至 則勇猛奮躍不已 必有長進 今不知如此 則書自書 我自我 何益之有) 제2편 4장 <窮理>

⑭ 주자가 말하기를, “『중용』을 읽는 자는 높은 경지를 넘보거나 기이한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구두와 문의 사이에 깊이 잠겨 그 귀추를 이해하고, 반드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가운데 삼가고 두려워하여, 실천에 옮기면 마음이 너그럽고 만족스러워질 것이다. ~” 하였다.(朱子曰 讀中庸者 毋歧於高 毋駭於奇 必沈潛乎句讀文義之間 以會其歸 必戒愼恐懼乎不覩不聞之中 以踐其實 庶乎優遊厭飫) 제2편 4장 <窮理>

⑮ 또 말하기를, “『상서』는 처음 읽으면 너무 어려워 자기와 상관없는 것 같으나, 그 후로 깊이 새기며 읽으면 요·순·우·탕·문·무의 사적이 모두 내게 절실한 것임을 알게 된다.” 하였다.(又曰 尙書 初讀甚難 似見與己不相干 後來熟讀 見堯舜禹湯文武之事皆是切己.) 제2편 4장 <窮理>

⑯ 정자가 말하기를, “지금 사람이 독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만약 시 3백 편을 읽다 하더라도 정사를 맡기면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보냈을 때 단독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니, 많이 읽은들 무엇 하겠는

가.~ 시를 읽은 뒤에 곧 답장을 마주하지 않은 것 같이 되어야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것이니, 대개 독서는 바로 이런 방법을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 (程子曰 今人不會讀書 如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 ~讀了後 便不面牆 方是有驗 大抵讀書 只此便是法) 제2편 4장 <窮理>

⑰ 나는 『사기』를 읽을 때마다 반쯤 읽으면 곧 책을 덮고 생각하여, 그 성공하고 패망한 것을 헤아려 보고, 그 뒤에 다시 읽다가 합치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또다시 정밀하게 생각하였다.(某每讀史 到一半 便掩卷思量 料其成敗 然後却看有不合處 又更精思) 제2편 4장 <窮理>

『성학집요』에서 밝힌 독서 방법을 정리하면 17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①~⑩<sup>11)</sup>는 독서 방법 일반론을 말한 것인데 반해 ⑪~⑰<sup>12)</sup>은 특정 책을 고려한 독서 방법을 밝혔다. 독서 방법 일반론을 밝힌 10개의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이 주자의 독서 방법으로 절대적이다. 주자가 밝힌 독서 방법을 핵심 용어로 추출하면 그 특징적 면모가 간명하게 드러난다. 주자의 독서 방법 용어로 ‘熟讀·澹治·精思·反復玩味·融會貫通·虛心涵泳·切己省察·先求於身·玩辭求義’ 등이 있다. 주자의 독서 방법 용어를 독서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본다.

책을 대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할 일은 마음을 비워 무젓음에 이르는 것이다. ‘허심함영’, ‘협흡’, ‘숙독’이 이에 해당한다. ‘허심함영’은 책을 대하기에 앞서 방심한 마음을 거두어 마음을 비운 후, 글 속에 담긴 뜻에 무젓는 것을 말한다. ‘협흡’ 또한 무젓음이다. 폭 젓음으로써 마음과 글 속의 이치가 맞닿아지는 것이다. ‘숙독’ 또한 유사하다. 숙독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을 말한다. 주자는 『독서법』에서 “讀書之法 先要熟讀”이

11) 인용문 중 ①~⑦는 朱子, ⑧⑨은 程子, ⑩는 楊時의 말이다.

12) 인용문 중 ⑪은 李侗, ⑫는 許謙, ⑬~⑮는 朱子, ⑯~⑰은 程子の 말이다.

라 하여 독서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방법으로 속독을 제시했다. 속독이 되어야 마음에 글을 담을 수 있고 글 속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sup>13)</sup>

익숙하고 무젓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은 후의 독서 방법으로 ‘정사’, ‘반복완미’, ‘완사구의’를 들 수 있다. 무젓음을 통해 글 속에 의미를 이해한 후, 정성스럽고 세밀한 생각[精思]이 더해질 때 글 속에 담긴 심원한 진리를 깨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복된 독서나 속독을 통해 완미하면 글 속의 진수를 체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완사구의’ 또한 ‘반복완미’와 다를 바 없다. 익숙하게 읽기를 통해 문장 이면에 갈무리된 의미를 제대로 음미하여, 은미하게 감추어진 본연의 뜻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사’, ‘반복완미’, ‘완사구의’는 독서를 통한 무젓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글 속에 감추어진 심원한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자 독서 방법의 마지막은 ‘융회관통’, ‘절기성찰’, ‘선구어신’이라 할 수 있다. 사심을 비운 마음에 성현의 글을 읽고 읽어서 참 뜻을 밝히고 거기에 독자의 정신과 정성이 기울여질 때 성현의 참뜻이 오롯이 자신에게 갖추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독서는 자기화의 과정과 실행의 과정으로 나간다. ‘융회관통’은 독서를 통한 체득화 단계라 할 수 있다. 즉 성현의 말씀이 녹아 하나로 모여 자신의 생각을 관통하여 일체화가 되는 것이다. 성현의 말씀과 나의 뜻이不二가 되지 않기 위해 ‘省察’과 ‘求身’으로 나가게 된다. 독서 방법의 귀착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독서의 마지막은 성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뜻을 자신에게로 돌려 실천하는 것이다. 7개 항목을 통해 주자 독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김원준, 「퇴계와 율곡의 독서법 용어를 통한 고전독서이론의 모색」, 『영남학』 21호, 영남문화연구원, 2012, p.362 참조.

정자가 밝힌 독서 방법은 단편적이다. 2개의 항목에서 정자는 ‘致精’과 ‘念書’를 제시하고 있다. ‘치정’은 글읽기의 시작으로 글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독서 방법이다. 글읽기는 글 속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정밀한 독서가 필수적임을 정자는 말하고 있다. ‘염서’는 隨人施教의 독서 방법에 해당한다. 재주는 있으나 신중하지 못한 독서자는 읽고 외우게 하여 들끓는 성정을 침잠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불안정한 성정을 노출하게 하는 작문은 삼가고 沈潛句讀에 힘쓰기를 강조한 것이다.

양시의 독서 방법은 주자가 밝힌 3단계 독서 방법 중 1·2단계에 해당한다. 독서는 몸과 마음이 책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 다음 몸가짐을 한가하고 고요히 하여 책의 내용 속에 조용히 빠져들어 마음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성현의 말씀이 나의 뜻과 거스름이 없어져야 비로소 책을 읽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시는 閒靜默會를 통해 성현의 뜻을 자득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을 제시했다.

이상이 독서 방법 일반론을 제시했다면 ⑪~⑰은 경서와 사서류와 같은 개별 서적에 대한 읽기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⑪는 이동의 『논어』·『맹자』, ⑫는 허겸의 『사기』, ⑬~⑮는 주자의 『대학』·『중용』·『상서』, ⑯⑰은 정자의 『시경』·『사기』 읽기에 대한 방법이다. 이를 四書·經書·史書로 나누어 살펴본다.

四書 읽기 방법은 주자와 그의 스승 이동의 글에서 볼 수 있다. 이동의 경우 『논어』·『맹자』가 지닌 개별적 가치의 특성을 고려한 읽기 방법 대신 ‘深求玩味’와 같은 독서 방법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주자는 『대학』과 『중용』을 읽는 데 있어 각각의 책이 지닌 특징이나 지향점을 고려하여 개별적 읽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자는 『대학』을 읽을 때 ‘善’이라는 要諦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함을 강조한다. 독서를 통한 善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효한 독서가 되는 것이다. 『중용』은 『대학』에 비해 심원한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 까닭에 高奇한 데 빠지지 말고 구두와 문의 사이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자득한 후 실천하라고 했다.

經書 읽기 방법은 주자가 『尙書』를, 정자가 『詩經』을 통해 말하고 있다. 주자는 『상서』를 처음 접하면 읽기가 어려워 難讀으로 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숙독을 제시했다. 깊이 새겨 읽을 때 비로소 요순우탕문의 사적이 독자에게 절실하게 다가 올 수 있다. 비록 『상서』를 처음 접할 때 읽기의 어려움은 있으나 숙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말했다. 정자는 『시경』읽기 방법을 제시했다. 올바른 독서 방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외우는 것은 제대로 된 독서가 아니다. 잘못 된 독서는 실용성이 없으며 面牆과 같다. 공자가 이르길 시는 興·觀·群·怨하다고 했다. 시를 통해 사람의 情과 物의 이치, 풍속의 성쇠, 정치의 득실을 꿰뚫어야 면장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자의 시경 독법은 시경 편찬의 의도를 고려하여 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체득할 수 있는 읽기를 강조한 것이다.

史書 읽기 방법은 『사기』에 대해서 말한 허겸과 정자의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허겸은 『사기』를 보는 데 있어 경계해야 할 것으로 사건만 기억하고 그 글만을 기억하는 것이라 했다. 허겸은 『사기』를 읽어야 할 이유를 ‘效善戒惡’에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이해가 아니라 인물의 대절과 세세한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성찰로 돌리는 데 있다. 이에 비해 정자는 인물의 대절이나 행동에 중심을 두지 않고 사건에 중심을 두고 있어 허겸과는 상반된 관점을 보이고 있다. 역사적 사건의 성패에 초점을 두고 정밀하게 읽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자의 『사기』읽기 방법은 역사적 사건을 숙독정사하여 그 성패의 인과관계를 진단하려는 데 있다.

『성학집요』에서 밝힌 17개 항목의 독서 방법을 일반론과 개별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자의 독서 방법 일반론을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단계의 체계성을 보여준다. 반면 정자나 양시의 경우 인용된 독서 방법이 제한적이라 단편적 방법론에 그치고 있다. 書類에 따른 개별적 독서 방법은 『사기』를 제외하고는 중복된 논자가 없다. 따라서 四書·經書는 각각의 책이 지향 바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독서 방법을 제시했다. 史書인 『사기』의 경우 인물과 사건 중심에 따른 독서 방법을 보이고 있어 논자에 따라 상이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성학집요』에는 송유의 다양한 독서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율곡의 독서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그에 비해 『격몽요결』은 송유 대신 율곡의 독서 방법만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서의 저술 의도에 따른 것이다. 권위의 부여를 위해 『성학집요』에서는 주자를 중심으로 한 송유의 독서 방법을 제시했다면, 『격몽요결』은 격몽을 위해 율곡 자신의 독서 방법을 간결하게 밝혔다. 격몽이 저술 의도인 까닭에 세세한 독서 방법 대신에 송유의 견해를 수합한 범박한 율곡의 독서 방법이 제시되었다. 다음 인용문은 『격몽요결』에 수록된 율곡의 독서 방법이다.

① 어떤 일이 생기면 이치에 맞게 처리해야 하고, 글을 읽을 적에는 정성을 다해 이치를 따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정좌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가운데 복잡하게 일어나는 생각이 없이 항상 깨어 있어 멍청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른바 “경으로 마음을 곧게 하라.”는 말이 이와 같은 뜻이다.(有事則以理應事 讀書則以誠窮理 除二者外 靜坐收斂此心 使寂寂無紛起之念 惺惺無昏昧之失可也 所謂敬以直內者如此) 3장 <지신>

② 독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책 한 권을 숙독해서 의미를 모두 알아 의심이 없이 흰히 알게 된 후에 다른 책으로 바뀌 읽어야 한다.(凡讀書 必熟讀一冊 盡曉義趣 貫通無疑 然後乃改讀他書) 4장 <독서>

③ 오서와 오경을 돌려가면서 많이 읽어, 끊임없이 이해하면 의리가 나날이 밝아질 것이다. ~ 그 밖의 성리학설을 틈틈이 정독하여 의리가 항상 내 마음에 젖어 들어 어느 때고 끊임이 없어야 한다.(五書五經 循環熟讀 理會不已 使義理日明 ~ 及他性理之說 宜間間精讀 使義理常常浸灌吾心 無時間斷) 4장 <독서>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율곡의 독서 방법은 송유에 비해 세세하거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①의 경우 ‘以誠窮理’라 하여 정성을 다해 읽을 것을 독서 방법으로 제시한 후 독서 자세와 관련한 내용이 뒤따른다. 후술한 독서 자세 중에서 ‘敬以直內’를 방법론과 연계한다면 율곡의 독서 방법에서 誠과 敬이란 특징적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율곡은 성과 경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지만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sup>14)</sup> 경이 공부를 행하는 요체이고 성이 공부의 효과를 거두는 지점이라고 했으니, 이를 독서 방법에 원용하면 경으로 말미암아 성에 이르는 독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송유의 독서 방법과는 일정한 차이를 두고 있다.

반면 ②의 독서 방법은 송유의 독서 방법을 원용하고 있다. 이는 독서 방법 일반론이란 점에서 송유나 율곡의 생각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한 권을 숙독하여 의문이 없이 관통한 후 다른 책으로 넘어가라고 한 것은 “한 단을 깨치고 비로소 한 단을 바꾸고, 한 책을 다 마치고 다른 책으로

14) 『성학집요』修己 “신이 생각건대 誠이라는 것은 하늘의 참된 이치이고 마음의 본체입니다.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은 사사로움에 가리워짐이 있어서이니 敬을 중심으로 삼아 사사로움을 모두 제거하면 본체는 곧 온전해 집니다. 敬은 공부를 행하는 요체이고 誠은 공부의 효과를 거두는 지점이니, 敬으로 말미암아 誠에 이릅니다.”(臣按 誠者 天之實理 心之本體 人不能復其本心者 由有私邪爲之蔽也 以敬爲主 盡去私邪 則本體乃全 敬是用功之要 誠是收功之地 由敬而至於誠矣)

바꾸어야 한다.”는 주자의 독서 방법과 다르지 않다. ③의 독서 방법은 초학자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학을 포함한 사서와 오경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할 때까지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또 읽으라는 것이다. 가장 원론적인 독서 방법이 초학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독서 방법이 되는 셈이다. 그런 후 의리가 내 마음에 젖어들 수 있도록 성리학서를 틈틈이 정독하라고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의 독서 방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서가 독서 방법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이한 집필 의도 때문이다. 『성학집요』가 제왕의 학문하는 본말을 밝히기 위해 저술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서 방법론에 있어서도 응당 주자를 비롯한 송유의 권위를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율곡의 목소리가 미미하다고 하나 이면에는 자신의 독서 방법을 송유의 이름으로 대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IV. 율곡 독서론의 특징

총 44권<sup>15)</sup>으로 구성된 율곡 문집을 일람해보면 26권<sup>16)</sup>에서 독서와 관련된 내용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논의 대상으로 삼았던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은 전체 독서 관련 내용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양서에는 심도있는 독서론이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율곡 독

15) 『栗谷全書』38권, 『拾遺』6권으로 구성.

16) 『栗谷全書』권4·6 <疏筭>, 권8 <啓>, 권9·11·12 <書>, 권13 <跋>, 권14·15·16 <雜著>, 권18 <行狀>, 권20·21·23·26『聖學輯要』, 권27『擊蒙要訣』, 권29『經筵日記』, 권32『語錄』下, 권34·35·36 『附錄』2·3·4. / 『拾遺』권1 <詩>, 권3 <書>, 권4 <雜著>에서 독서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론의 핵심이 여기에 분포한다. 따라서 양서를 통한 독서론 분석과 대비는 율곡 독서론의 특징을 적출할 수 있다.

양서에는 율곡 독서론의 핵심 항목인 독서 목적·독서 자세·독서 방법이 중요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만 독서론과 관련한 양서의 편폭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저술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기인한다. 帝王入道와 유가 학문의 지침을 삼고자 저술한 「성학집요」는 그 무게만큼 독서론도 권위의 힘을 빌려서 율곡 자신의 독서론을 밝힌 것이다. 이에 반해 초학자를 위해 저술한 「격몽요결」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율곡 자신의 독서론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율곡 독서론의 특징을 앞 장에서 논의한 항목을 중심으로 밝혀본다.

첫째, 독서 목적이다. 독서의 목적을 밝힌 주자, 정자, 그리고 율곡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은 窮理이다. 독서의 일차적 목적은 이치를 궁구하는데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주자는 ‘글을 읽어 이치를 궁구한다’, ‘이치를 궁구하는 데 있어 독서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책을 읽어 궁리하라고 했으며, 정자는 ‘책을 읽는 것이 궁리의 실마리 중 하나다’라고 했다. 율곡 또한 ‘독서는 궁리하는 일이다’, ‘글을 읽어 이치를 궁구하라’, ‘이치를 궁구하는 데 독서가 먼저다’라고 한 점에서 본다면 ‘窮理’가 독서의 일차적 목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주자·정자·율곡은 궁리라는 독서의 일차적 목적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독서 궁리를 통해 이차적 목적을 제시하는데, 주자는 궁리를 통해 ‘遏人慾存天理’와 같은 본연지성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정자는 의리라는 ‘人之正路’의 윤리적 실천을 독서 궁리의 목적에 두고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 이에 비해 율곡은 독서의 목적을 이분하지 않고 궁리와 실천을 한 궤에 두고 있다. 즉 율곡의 독서 궁리는 正道의 실천에 이르는 길로, 선을 본받고 악을 경계하는 실천궁행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

독서 목적은 주자의 상달 지향, 율곡의 하학 지향, 그리고 정자의 그 중간 지점을 통해 모두 말하고 있는 셈이다. 율곡은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의 저술 의도에 따라 상달과 하학으로 나누어 독서 목적을 제시했다.

둘째, 독서 자세이다. 율곡은 독서 자세에 대해서 주자의 독서법을 그대로 수용했다. 주자의 독서 자세는 ‘收斂精神, 嚴恭寅畏, 居敬持志, 的實平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주자의 독서 자세는 **居敬**으로 귀결된다. 책을 대하기에 앞서 **敬**의 상태인 **主一無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주자와 함께 진백의 독서 자세도 인용했는데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거경에 있다. 진백은 거경에 이르기 위한 실질적 몸가짐인 **盥櫛衣冠, 端坐斂形, 嚴肅整齊** 등과 같은 구체적 자세를 밝혔다. 율곡은 독서 자세로 **端拱危坐**만을 제시하고 있다. 단공위좌 또한 **靜一**에 이르는 과정이란 점에서 거경으로 귀결 되겠지만 구체적 자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율곡은 독서 자세에 있어서도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차등화 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독서 방법이다. 독서 방법은 독서를 위한 실질적 방법론에 해당하므로 독서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양서를 합쳐 20개의 항목이 독서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독서 방법 일반론과 서책에 따른 개별 독서 방법론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독서 방법 일반론은 주자의 독서 방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3단계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마음을 비워 무젓음에 이르는 것이다. ‘虛心涵泳’·‘浹洽’·“熟讀”이 이에 해당하는데 책을 대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방법이다. 이는 방심한 마음을 거두어 마음을 비운 후, 글 속의 뜻에 무젓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방법이다. ② 글 속에 담긴 심오한 뜻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精思’, ‘反復玩味’, ‘玩辭求義’가 이에 해당한다. 숙독 후 이어진 세밀한 생각과 깊이 있는 음미는 고인의 생각과 맞닿을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③ ‘融會貫通’·‘切己省察’·‘先求於身’로 이어져 고인의 가르침을 체득화하고 최

종적으로 실천에 이르게 된다. 율곡은 주자의 독서 방법을 인용하면서 순차적 방법을 적용하여 독서 방법 일반론을 이끌어냈다.

율곡의 독서 방법을 제시한 『격몽요결』에는 『성학집요』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론은 보이지 않는다. 초학을 위한 자신의 독서 방법론을 제시한 때문에 『성학집요』처럼 구체적이고 세세한 방법론에는 미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송유의 독서 방법 일반론에 해당하는 ‘熟讀’·‘精讀’·‘浸灌吾心’과 같은 용어들을 제시한 후 끊임없이 읽기를 요구했다. 책을 놓기 쉬운 초학자들에게 세세한 방법론보다는 읽기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율곡의 독서 방법 중 송유와 차별성을 보이는 독서 방법인 ‘誠’과 닮아있다. 율곡은 ‘誠’을 독서 자세인 ‘경이직내’와 연계하여 ‘敬’을 통한 ‘誠’의 독서 방법을 제시했다. 즉 율곡의 독서 방법에 있어서의 ‘誠’은 경을 바탕으로 한 이치의 궁구 뒤에 이루어지는 무실역행의 실천을 독서 방법론에 적용한 것이다.

## V. 마무리

본 논문은 율곡의 독서론 전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과정 중 하나이다.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쏘스 가운데 율곡의 독서론이 집약되었을 정도로 심도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양서를 통한 독서론의 대비 분석은 율곡 독서론의 특징 전반을 적출할 수 있다. 율곡 독서론의 특징 3가지를 독서 목적, 독서 자세, 독서 방법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서 목적이다. 독서 목적에서 송유나 율곡이 한결같이 주장한 것은 궁리이다.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독서의 일차적 목적이라는 데는 이견

이 없다. 공리를 통한 이차적 목적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주자는 공리를 통해 본연지성의 회복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율곡은 독서 목적을 正道의 실천에 뒀으로써 실천궁행을 강조했다. 독서가 상달의 지향이란 고차원적 목적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천이란 하학의 목적도 중요하다. 이를 양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독서 자세는 주자를 비롯한 송유나 율곡 모두 敬을 중심에 두고 있어 본질적 측면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주자는 居敬을 위한 내면의 자세에 주안점을 둔 반면, 율곡은 거경에 이르기 위한 실천적 자세에 중심을 두고 있다. 결국 양서를 통해 율곡이 지향하는 독서 자세는 거경을 위한 내·외적 자세의 중요성을 갈파한 것이다.

독서 방법은 독서를 위한 실질적 방법론이란 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율곡은 주자의 독서 방법을 3단계로 나누어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독서 방법 일반론을 체계화했다. 이에 더해서 율곡은 초학자를 위한 실천적 독서 방법으로 誠을 제시했다. 율곡 독서 방법의 특징은 일반론의 전체 위에 무실역행이란 실천적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안, 「주자의 독서론」, 『철학연구』53호, 철학연구회, 2009, pp.52-24.
- 권 호, 「율곡 이이의 독서론」, 『독서문화연구』4권, 2005, pp.1-12.
- 김기호, 「고전독서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상과문화』50집, 한국사상과 문화학회, 2009, pp.1-36.
- 김 영, 「조선시대 독서론 연구 : 退溪와 栗谷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제12집, 한국한문학회, 1989, pp.203-225.
- 김원준 외 3인, 『동양 고전독서이론 용어 해설집』, 영남대학교출판부, 2013, pp.1-225.
- 김원준, 「퇴계와 율곡의 독서법 용어를 통한 고전독서이론의 모색」, 『영남학』21호, 영남문화연구원, 2012. pp.337-394.
- 김은경, 「『朱子語類·讀書法』에 나타난 독서의 의미와 방법」, 『教員教育』22권 3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6, pp.113-133.
- 류명중, 『退溪와 栗谷의 哲學』, 동아대학교출판부, 1987, pp.1-534.
- 신태수, 「『주자어류』〈독서법〉에 나타난 독서이론」, 『퇴계학논집』3집, 영남퇴학연구원, 2008, pp.255-302.
- 양희룡, 「주자의 독서 방법론」, 『한국고전연구』1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5, pp.299-329.
- 유성선, 『栗谷 李珥의 修養工夫論』, 국학자료원, 2002, pp.1-197.
- 정 민, 「고전 독서 방법론의 양상과 층위」, 『한국교육연구』제25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pp.515-547.
- 조희정, 「전통적인 글읽기의 성격과 과정 -『성학집요』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pp.391-411.
- 홍운녕, 「율곡 이이의 독서론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1-86.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Yulgok's Reading Theory  
- With *Seonghakjipyo* and *Gyeokmongyogyeol* -

Kim, Won-Jun

This study identified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Yulgok(栗谷)'s reading theory through *Seonghakjipyo*(聖學輯要) and *Gyeokmongyogyeol*(擊蒙要訣), in which his reading theory was intensively integrated.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ctions allocated to the reading theory between the two books, they addressed the core items of reading theory including the goals, attitudes, methods, orders, and ills of reading the same way. The goals of reading are the recovery of Bonyeonjiseong(本然之性) through deliberation and the practice of Jeongdo(正道). In the end, Sangdal(上達) and Hahak(下學) are the purposes of reading. The essence of reading attitudes is Gyeong(敬). Since reading should be through Gyeong, the reading attitudes put an emphasis on the internal attitude for Gyeong and the practical attitude to reach Geogyong(居敬). The reading methods present actual methodologies for reading. After dividing Zhu Xi's reading methods in three stages and presenting a general theory on reading methods, he stressed practical reading methods through Seong(誠).

Key Word : Yulgok, *Seonghakjipyo*, *Gyeokmongyogyeol*, reading goals, reading attitudes, reading methods

김원준

소속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전자우편 : kimwj1004@ynu.ac.kr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